

내용 요약

1965년 이 책의 공동 저자인 티쿠(G. Tikku) 교수가 당대 최고의 시인들 중 일부를 초대해 일종의 회합을 가지고 시인들의 사명감에 대한 토론을 주도했다. 토론주제는 소위 말하는 '궁핍한 시대'에 시가 해야 할 일과 시인의 사명, '현대 페르시아시'의 특성을 규명하고 구성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투쟁 등이었다.

함께 모인 시인들은 좋은 시에 대해 논의하고, 시 창작이 무엇인지, 시인의 자질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물으면서 페르시아 현대 시에 대한 포괄적인 고민을 했다. 특히 정치적·사회적·역사적으로 특정 사건이 시의 내용을 구성하고 그것이 시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격렬하게 토론했다. 뿐만 아니라 시 번역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지만 시를 이해하거나 분석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다 다르기 때문에 시인 상호가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가능한지도 철저하게 검토했다. 그들은 시인이 청중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하는지 고려하고, 시가 주로 자신을 위해 쓰였을 때도 사회적 측면을 갖는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때 함께 모든 시인들이 이런 식으로 다시 모이는 일은 거의 없었으므로 티쿠가 준비하고 주관한 이 행사는 참으로 특별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페르시아 현대 시인들과의 대화』가 탄생할 수 있었는데, 이 책은 페르시아 문화 역사에서 이 중요한 시인들이 자신의 일과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많은 통찰력을 제공하다.